

강남포교원 노인불자 공부모임

선우회



못 말리는 순수와 열정

21일 오후 1시 강남포교원 3층 선실(禪室). 원장 성열 스님이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원전을 읽어가며 그 속에 담긴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 스님의 진지함 못지 않게 10여명 학생들의 수강 태도는 말 그대로 모범적이었다.

"달마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불법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해탈했다. 여러석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일체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불법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불법이 황금보다 더 귀한 건 분명하지만 그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되면 '황금 감옥'이 돼 버립니다. 불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스님의 강좌가 계속 되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앗! 머리에 하얀 눈이 내려왔을 걸로 봐서 일흔은 족히 넘었을 것 같다. 무슨 학생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걸까?'

“버려지고 학대받는 동물들 너무 많아요”

생명 사랑 실천 이정덕 교수

지난 2월 정년퇴임한 이정덕 명예교수(65·동국대 가정교육과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 9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연 '생명의 집'에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왼쪽 뒷다리가 잘려 나간 검둥이 '로보', 온몸에 피부병이 번져 얼굴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없었던 '백구'... 모두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지만, 일단 이 교수의 '작은집' 식구로 들어오면 존귀한

생명체가 된다.

현재 '생명의 집'에는 1백여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있다. 이 교수는 바로 이 생명체들을 돌보는 '엄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보기에 징그러울 정도로 심한 피부병이나 진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생명의 집'으로 옮겨진 식구들을 자식처럼 감싸안는다.

'집에서 7년간 키웠던 강아지 '로망스'가 집을 나가 길을 잃고 죽은 것이 계기가

됐어요. 충격이 컸지요.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잃은 슬픔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슬픔에 휩싸인 이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법정 스님(강산사회주에게 자신의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법정 스님은 업(業)이 달라서 모두가 다른 생명의 부리는 같으면서, 그렇게 괴로우면 49재를 지내주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왔지요' 곧바로 이 교수는 인연 닿는 절에서 정성껏 49재를 지내 주었다.

그때부터 이 교수는 길을 헤매거나 거리에 버려진 개와 고양이, 또 보신집 집에

러가기 직전인 개들을 자기 아파트로 데려다 키웠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인근 이웃들로부터 '개들이 너무 짊어 애들 공부에 지장이 많다', '불결하다'는 원성이 들려오자 아예 용인에 땅을 빌려 '생명의 집'

용인에 '사랑의 집'... 집없는 개·고양이 돌봐

을 세웠다. 요즘 '생명의 집'은 늘어나는 운병비 때문에 존립위기를 맞고 있다. 병든 개와 고양이의 치료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인간의 사랑이 메마르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모자라 학대받고 버림받는 동물들이 우리 이웃엔 너무 많습니다. 최소한의 생명체라도 돌보고 보호해 줌으로써 생명존중의 정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바

로 '생명의 집'이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집'은 꼭 살려야 할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고 힘주어 말한다. 031)704-6315 김주일 기자(jkim1@buddhapia.com)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보는 '생명의 집'을 운영하는 이정덕 동국대 명예교수가 식구(가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다.



청춘을 부끄럽게 하는 늙음

노인불자공부모임 '선우회(禪友會)'. 매주 월요일 강남포교원에는 62세~84세에 이르는 거사 불자들이 책가방을 들고 모여든다.

매주 월요일마다 정진

선우회 공부모임은 6년 전 처음 시작됐다. 노인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참선을 하고, 11시~12시 오전공부를 한다. 한 주일은 승가대 총범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또 한 주는 노자 주석서 강의 테이프를 듣는다. 일종의 자율학습인 셈이다. 하지만 자율학습이라고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는다. 의문 나는 점들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토론을 벌인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다시 성열 스님께 조언을 구한다. 12시~1시에는 포교원의 공양간에서 점심을 먹고, 1시~2시까지 성열 스님과 함께하는 오후 공부라 시작된다. 그동안 학생들은 육조 단경, 선종영가집, 전심법요, 달마행록 등을 공부했다.

학생들의 과거사는 '학생'의 반대편. 대부분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이다. 문학박사·철학박사·공학박사에, 대기업 중역도 있다. 젊은 시절부터 불이회, 구도회, 교사불자연합회, 교수불자연합회에서 활동을 했거나, 불교교양대학, 한국불교연구원, 성천아카데미 같은 곳을 거쳤다.

이 학교(가)에서 60대는 햇병아리(가)나 다름없다. 그래서 60대 초반인 이성기, 민경식 거사는 자연스럽게 차(茶) 심

부름을 도맡는다. 웃지 못하는 일은 이 뿐이 아니다. 스승인 성열 스님은 학생들보다 훨씬 아래인 50대 후반이다.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외국에 나가는 일 외에는 공휴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쉬자고 해도 노인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죽을 지경이예요. 어떤 때는 외국 책을 읽고 좋다고 번역해 와서 읽어보라고 내밀고, 또 어떤 때는 불교 논문 초고를 만들어 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과연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합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학생들로 골치 아픈(?) 성열스님

역시 학구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노인 학생들의 말. "불교원전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이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잘 해석하지도 못하는데 성열 스님은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다들 모이게 됐습니다. 원전해석에 불교의 여러 이야기와 가르침, 그리고 참선 지도까지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진짜 불교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매진 성적표는 어떻게. 조홍식(82세) "공부도 하고 좋은 도반도 만났으니 이보다 더 알찬 성적표 있을까."

김해인(78세) "그저 열심히 정진해 나갈 뿐." 장기성(77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 대해 반성."

스스로 자신을 평한다면

유병국(75세) "입문에 불교하고, 아직 부족." 문범주(74세) "자연과학을 기초로 불교 이해하려고 노력 중."

김병철(74세) "간신히 따라감." 김동연(74세) "할수록 어렵고 끝이 없다." 류기동(73세) "불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 공부함."

이재순(69세) "교리에 대한 이해부터 단단히 하려고 함." 이상식(69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성기(64세)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민경식(62세) "즐겁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분 "초년생이어서 할 말이 없다."

글=이은자 기자(eje@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yminsoo@buddhapia.com)

“우리시대 불교미술” 한자리에

국내 최초 근현대불교미술 집대성

미술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고작가 불교소재 작품 수록!

김복진(근대 최초 조각가)·정종여(근대 최초 유화가)부터 노상균(베니스비엔날레 수상작가)까지 대가의 다양한 불교미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은 아름다운 추구라는 중요한 덕목을 가지고 있다. 불교미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운을 기반으로 하여 깨달음이라는 불교의 궁극적 가치관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신과 고려의 미술가들은 신앙활동의 하나로 미술작품을 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진술하고 격조가 있다. 하지만 현대 작가의 경우는 예전과 입장이 다르다. 불교미술이란 영역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불교미술의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험난한 편인지 이해된다. 하지만 아름다운에 깨달음까지 보태지는 미술, 이는 불교미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 윤범모 미술평론가·경원대학교교수

「아름다움과 깨달음」展 -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경주전 2002년 11월 2일 - 11월 19일(아트선재미술관) ■속초전 2002년 11월 22일 - 12월 1일(속초시문화회관) ■여수전 2002년 12월 초(여수문화회관)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7층 Tel: 02-725-1132